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가 돌아오기까지

‘문화재청 사람들의 문화유산 이야기’ 출간

문화재청 사람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보면서 겪은 일들을 모아 <문화재청 사람들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출간해 화제다. 솔집 간판, 차도의 비둘기, 드라마 등 세상 모든 것이 문화재로 보인다는 이들이 쓴 문화유산 이야기다. 2007년 7월까지 쓰여진 500여편 글 가운데 26편이 실린 책에는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이중 강신태 반장(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의 건봉사 진신치아사리 도굴 사건을 다룬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의 귀환’과 박상국 위원(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에 관한 ‘100년 동안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찾다’는 불교문화재 보호와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실화라 흥미롭다.

우선 강신태 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86년 봄, 금강산 건봉사에 안치된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가 도굴·절취된 사건이다. 당시 시간을 뒤늦게 들었던 사건은 드라마틱하게 종결됐다. 사건 제보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는 중무원의 꿈이었다. 부처님이 도굴 사실을 알려줬다. 꿈이 너무 생생해 다음 날 건봉사를 찾은 중무원은 사리탑이 실제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문화재관리국 사법단속반(문화재안전과) 전신, 이하 단속반은 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한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오길 “서울시 모호텔 프린트에 가서 신홍



불교문화재 보호·연구 필요성 일깨워 강반장 도난당한 문화재 찾은것 수천건



도굴·절취사건 전 사리탑(상단 좌측), 새로 조성된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 부도(상단 우측), 아래 사리함(하단 좌측), 후령동 및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하단 우측).

사 해법 스님이 맡겨둔 약봉지를 달라고 하면 사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단속반은 바로 호텔에서 사리함을 찾았다. 하지만 사리 수가 이상했다. 문헌 기록에는 12과였는데 8과만이 들어있었다. 사리함 속의 빈 공간도 사리 4과가 더 있을 것처럼 보였다. 강씨는 “당시 사리가 나머지 4과를 찾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단속반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사건은 관련자 전원 검거로 종결됐다.

강 반장은 “5개조 수사대가 검은 세단에 나뉘고 새벽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고하면서 “범인은 모두 검거했지만 나머지 사리 4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강 반장이 찾아낸 도난 불교문화재는 수천 건이 넘는다.

1999년에는 공을 인정받아 고산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고, 이후 정대 스님, 법장 스님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3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강 반장은 사라진 사리 4과를 찾겠다는 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학자에 의해 100년 동안 ‘속장(續藏; 속장경, 속대장경)’으로 불렸던 대각국사 의천의 대장경 연구를 연구하다 ‘교장(敎藏)’ 명칭을 되찾아 교과서 등을 수정하는 성과를 이룬 박상국 위원의 경협담도 신선하게 읽혀진다. 조동섭 기자

부여 왕흥사지 사리는 신성 왕권의 상징

2007년 10월 공개된 부여 왕흥사지 목탑터와 사리기기에 대해 인도 아소카와 전통을 잇는 이상적인 불교 신성왕권의 상징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1월 29일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 주최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린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에서 ‘중흥의 비원과 진흥 사이’를 발표한 이기동 교수(동국대)는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백제 위덕왕이 부왕과 죽은 왕자를 위해 불사하고 사리를 봉안한 것이다. 당시 사리는 신앙 차원을 넘어 왕즉불(王即佛) 사상을 대변했

이기동 교수 왕흥사 관련 국제학술회 발표



2007년 10월 공개된 왕흥사지 사리구.

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왕흥사지에서 사리가 나온 것은 백제의 불사리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이 교수는 “불사리는 불신(佛身)과 똑같은 것이며, 탑을 조성한 것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서기>에 ‘백제가 588년 왜국에 불사리를 전했다’는 사실을 들어 백

제의 불사리신앙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견해도 밝혔다.

사가와 마사토시 교수(일본 동북학원대)는 “왕흥사 유물이 중국 남북조 및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 교수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사가와 교수는 “심초석의 지하에 위치하는 점, 사리장엄

구 기능이 중시된 공양품 구성이 6세기말~7세기 일본 목탑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장엄구는 중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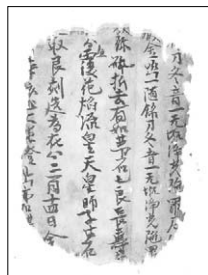
한편 양흥 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은 “심초석을 파내 만든 구멍에 사리용기를 봉안하는 양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묵서지편’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물어 본 ‘묵서지편’ 관련 논지

본지 <제664호> ‘묵서지편(사진) 판독순서 바뀌었다’는 기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무구정광탑은 다보탑, 서석탑은 석가탑이라는 남동신 교수(덕성여대)의 주장은 무리 없다”는 내용과 ‘묵서지편의 <정종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행지>와 <정종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행지>가 누락’은 별도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다’라고 해 기존 해석이 말한 중수작업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최연식 교수

(목포대) 주장에 최초 판독자인 이승재 교수(서울대)는 왜 반론을 제기했을까? 당시 발표자와 토론의 주역인 최교수, 이 교수와 함께 교계 문화재 시각을 대변해온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연식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의 논지가 토론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내용을 지적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려하면 하나의 문서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최연식 교수 의견에 대해서는 “최 교수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재론의 여지를 남겼다.

박 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불교 관련 이해는 신앙·의례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원

장은 “신라시대 탑은 대중전보다 높은 신앙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며 조탑신앙에서 접근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묵서지편’의 기록도 <중수행지>에 상문부를 들어낸 기록을 들어 ‘석가탑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석가탑 보수에 대해 새로운 설을 역설했다. “지진으로 청운교·백운교 위의 불국사 단이 무너진 것이다. 당시 신앙으로 석가탑, 다보탑을 석가여래, 다보여래라고 했을 만큼 불국사 단은 불국정토다. 예를 들어 대중전 한쪽이 훼손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거와 정황, 그리고 신앙 어느 것이 진실일지는 ‘묵서지편’만이 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5)한국선학회 www.seonstudy.org

선학을 연구하는 전문 학술 모임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선학을 전공한 전문 학자들이 구성된 학술모임이다. 2000년 3월 현각 스님(동국대), 법산 스님(동국대), 무비 스님(은혜사) 등 출가선지식과, 권기종 교수(동국대), 최병현 교수(서울대), 이평래 교수(충남대) 등 재가학자가 뜻을 모아 학회를 창립한 이래 한국 선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선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2000년 초대 회장 현각 스님(동국대) 이후 제2대 회장은 법산 스님이 역임했다. 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선학회는 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 이론 정립, 현대화, 생활화 등을 연구해 왔다. 연 4차례 매월 학술발표회, 춘·추계 학술대회, 하계·동계 수련회 등 내실 있는 학회운영을 통해 학계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학회는 2005년 학술지 <한국선학>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선학회는 한국선 전반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선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정리, 간화선 및 율사나와 여타 명상법 등 제수행법에 대한 고찰, 심리학·문학 등 학제간 연구, 사회현상의 선적 해법의 모색을 통해 선의 생활화와 한국선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열린 토론을 통한 발전을 위해 회원은 선학 전공자 뿐 아니라 선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개방돼 연 2만원의 연회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www.seonstudy.org
한국선학회 제43차 학술발표회
발표: 2008년 2월 6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인류학관 201호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 교육원 •제주 교육원

◆원서 교부 및 접수: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자동 110-39번지(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본 중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한국불교 증흥교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등록 및 승려자격 ○타중단에서 사미계 이상 수지한자
○법당에 본존불(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이여야 함

※ 본 중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사찰등록서류 ○입증 신청양식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앞뒤) 1매, 승려증 사본 1매,
○종단 간부 소임을 맡을분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일체 교육비 없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입 증 비 : 일십만원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중단 입증후 중도연수교육 수료후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중단은 강원 및 울진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 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